

[하모니]

<작 품 개 요>

1. 제목 : 하모니
2. 형식 : 단편 극영화 / 호러 판타지 장르
3. 예상 러닝타임 : 10분
4. 각본/연출 : 강석주
5. 제작 : 한양대학교 대학원 연극영화학과

<스토리 개요>

4. 핵심 소재 : 층간소음
5. 목표 :
 - 주인공 예린은 추리 웹 소설 작가로 당장에 일일 마감에 대한 압박을 느끼고 있다. 예린은 6시라는 마감시간에 맞추어 원고를 마감하는 것을 목표로 하지만 자신의 강박감과 압박에 대한 심장소리를 위층의 층간소음으로 여기는 가운데 이 방해요소가 멈추기를 바라는 목표 또한 있다.
6. 주제 :
 - 자신의 불안과 초조는 외적인 요소가 아닌 내부로부터 나온다는 표현.
7. 캐릭터 :
 - 예린 - 현재 뜨고 있는 추리 웹 소설 작가.
매일 일정한 마감 시간인 6시에 맞추어 자신의 원고를 업로드 해야 하는 입장에서 구독자들과 담당자의 기대 그리고 마감에 대한 압박감을 느끼고 있다.
나이 : 25 - 29살 연령대
성격 : 자신이 모르는 미지의 무언가에 대해서는 경계하는 성격.
외형 : 잘 꾸미지 않고 눈 밑 다크서클이 심한 편.
추리닝 차림. 머리는 질끈 묶은 포니테일 형을 주로 함.

<시놉시스>

추리 웹 소설 작가 예린이 마감에 허덕이고 있다. 마감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 담당자의 독촉 전화와 문자가 오고 다급히 작업을 하고 있는데 윗층에서 들려오는 소음이 예린에게 거슬린다. 천장도 쳐보고 민원도 넣지만 소음은 끊이지 않고 결국 예린이 직접 윗층에 올라가게 된다. 문을 열고 들어선 집에서 소음이 들려오는데 마침 직접 찾아온 경비원을 만나게 되고 들려오는 소음의 발원지인 문을 열지만 아무도 없다는 것을 알게 된다. 알고 보니 게스트 하우스로 쓰이는 집이었고 허무하게 다시 자신의 집으로 돌아오게 된다. 예린이 작업을 다시 하려는데 마감 시간에 가까워져 있었고 당장에 걸려오는 담당자 전화를 보게 되는데 다시 소음이 들려오기 시작한다.

<연출의도>

사람이 예민하고 다급할 땐 자신의 심장소리를 굉장히 크게 듣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내면에서 들리는 소음을 외부의 소음으로 착각하는 모습을 통해 불안과 초조함은 외부가 아닌 내면에 존재한다는 말하고자 합니다.